

## 국어(한문 포함)

### 1. 다음 강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IQ도 높을까요? 미국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IQ는 성인 평균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지능이 곧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골먼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상황적이고 사회적이라는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괜찮은 수준의 IQ를 사회적 기술 및 인간이 가진 여타의 역량들과 잘 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 ① 강연의 순서를 안내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강연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 ③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화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강연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어제 백화점에 갔었는데, 점원이 “손님, 지불액은 삼십만 원이세요.”라고 하더라고. 이런 과도한 표현을 ‘사물 높임’이라고 하던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게 잘못된 표현인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을: 이런 표현은 분명 잘못됐어.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80% 이상이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인 걸 알면서도 고객이 이 같은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더라고.

병: 나는 ‘사물 높임’을 고쳐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어라는 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이잖아. 실제 그 표현을 쓰는 언중이 많다면 해당 표현을 표준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정: 문법적으로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을 높일 때 실현되잖아? 갑이 든 사례에서 지불액은 원래 갑의 소유였으니까 점원의 발화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 ① 갑과 을은 사물 높임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 ② 을과 정은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 ③ 갑과 병은 사물 높임을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견해를 함께한다.
- ④ 병과 정은 사물 높임을 고쳐야 할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를 함께한다.

### 3.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는 좋은 이웃을 ㉠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 ①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만났다.
- ② 새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났다.
- ③ 과일이 제철을 만났다.
- ④ 배가 풍량을 만났다.

###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언어 습득에서 자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어린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자극만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복잡한 문법적인 제약을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를 스스로 알아나간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나) 어린아이들은 만 4 ~ 5세까지 접촉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같이 짧은 기간의 제한적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는가.
- (다) 물론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이 완전히 같은 성질은 아니다. 걷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지만 언어 능력은 특정 시기에 주변의 언어에 노출되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언어 학습 자극이 필요한 셈이다.
- (라) 이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은 인간은 언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아이가 언어에 대해 알고 태어난다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 자극을 받으면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나) - (라) - (가) - (다)
- ③ (나) - (라) - (다) - (가)
- ④ (다) - (가) - (라) - (나)

### 5.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 이름의 경우,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는 첫 글자로 장수와 영화로움을 뜻하는 ‘영(永/榮)’이 선호되었다. 전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래도록 영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영수, 영철’ 등의 이름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 발전기에는 선호 글자에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성(成/盛)’이 선호되었고 1990년대에는 ‘준(俊/竣)’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시대의 부모들은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훈, 성호, 준영, 준혁’ 등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여성 이름의 경우에도 연대별로 이름 첫 글자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다. 1950년대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榮/泳)’이 선호되었다. 세상을 잘 헤쳐 나가면서 영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숙, 영희’ 등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1960년대에는 ‘미숙, 미영’과 같이 ‘미(美)’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높은 가치를 두기 시작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980년대 여성 이름 가운데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이름은 ‘지혜’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여성의 지혜나 지성을 높은 사회적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① 경제 상황에 따라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
- ②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다.
- ③ 이름으로 선호하는 글자에는 그 시대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반영된다.
- ④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현상이 이름으로 선호하는 글자에 드러난다.

6. 다음 개요의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소음 공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 (가)

II. (나)

1. 교통 소음
2. 산업 소음
3. 생활 소음
4. 기타

III. (다)

1. 수면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
2. 청력 손상 및 난청 유발
3. 생활 및 학습 환경 조성 불가
4. 사회적 갈등 야기

IV. 소음 공해의 개선 방안

1. 개인 차원의 개선 방안
2. 지역 사회 차원의 개선 방안
3. (라)

- ① (가): 소음 공해의 개념과 심각성
- ② (나): 원인에 따른 소음 공해의 유형
- ③ (다): 소음 공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 ④ (라):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7. ㉠ ~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 경어법에서 ㉠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이다. 그런데 나이가 경어법 사용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 차이에 따라 경어법을 사용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인 나이도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어려서는 반말을 쓰던 사람들이 ㉡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후에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직위’가 경어법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존대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에서 ㉢ 직위와 나이가 같음을 일으킬 때는 대개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상급자도 자기보다 연장자인 하급자에게 나이에 맞는 대우를 해 주지만 그때의 정중함보다는 하급자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를 대하는 정중함의 정도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이나 직위와 같은 요인 외에도 ‘유대’도 우리말에서 경어법 결정의 요인이다.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친해지면 반말하는 사이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나이, 직위 등과 같은 ㉣ 권세의 영향력이 유대의 영향력보다 작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① ㉠: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 차이이다
- ② ㉡: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후에도 서로 반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 ③ ㉢: 직위와 나이가 같음을 일으킬 때는 대개 나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 ④ ㉣: 권세의 영향력이 유대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8. ㉠ ~ ㉢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서 간 ㉡ 상호 ㉢ 대화와 ㉣ 교류가 필요하다.

- ① ㉠: 會士
- ② ㉡: 相互
- ③ ㉢: 對話
- ④ ㉣: 交流

9. ㉠ ~ ㉢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 ① ㉠은 의인법을 통해 세계와 자아의 갈등을 표현한다.
- ② ㉡은 제유법을 통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 ③ ㉢은 반어법을 통해 이상적 자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다.
- ④ ㉣은 청유법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다.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오뇌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 손창섭, 「비 오는 날」에서 —

- ① ‘비’는 원구에게 동욱 남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② 동욱 남매는 가난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 ③ 맑은 날에 원구는 동욱 남매를 생각하지 않는다.
- ④ 원구는 동욱 남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11. (가)와 (나)의 종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朔風(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춘디  
萬里邊城(만리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집고 서서  
긴 폭람 큰 혼소리에 거칠 거시 없세라

(나) 閑山(한산)섬 들 불근 밤의 戍樓(수루)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피 찰고 기픈 시름 허는 적의  
어디서 一聲胡笳(일성호가)는 놈의 애를 굿느니

(가) (나)

- |       |     |
|-------|-----|
| ① 호방함 | 호방함 |
| ② 호방함 | 애달픔 |
| ③ 애달픔 | 호방함 |
| ④ 애달픔 | 애달픔 |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참 이리 노닐 적에 난데없이 독수리가 살 쏘듯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 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 정신이 또 위급하다. 토끼 스스로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거니와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오.’ 생각하며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중 문득 한 피를 얻고 말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하여 모은 양식 쓸데없어 한이더니, 오늘로써 만나니 늦었으나 어서 갑시다.”

“무슨 음식 있노라 달콤한 말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내가 수중 용왕이 아니니 내 어찌 너한테 속으랴.”

“여보 아주머니, 토진(吐盡)\*하는 정담을 들어 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 있고 저리할 사돈 있다 함과 같이 수부(水府)\*\*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이거니와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터이거늘 어찌 감히 속이리까. 건너 마을 이동지가 사냥 하노라고 나를 몹시 놀래기로 그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만배 병아리 사십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 오고, 제일 긴한 것은 용궁에 있던 ㉠ 의사(意思) 주머니가 내게 있으니 이 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나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가 다 있지마는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니, 나와 같이 어서 갑시다.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자손에게까지 전하여 누리면 아니 좋을손가.”

미련한 수리가 마음이 솔깃하여,

“아무려나 가보자.”

— 작자 미상, 「토끼전」에서 —

\* 토진(吐盡): 간과 쓸개를 다 토한다는 뜻으로, 실정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말함

\*\* 수부(水府):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

- ① 토끼가 배고픈 독수리를 속이기 위한 소재이다.  
② 토끼가 독수리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③ 토끼가 피를 발취해 독수리에게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④ 토끼가 자신보다 힘이 센 독수리에게 붙잡혀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제시된 소재이다.

13. 밑줄 친 말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난관이 산재(散在)해 있다.  
② 어차피(於此彼) 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③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일체(一切)의 책임을 졌다.  
④ 과열된 경기를 부양(浮揚)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14. 다음 글의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감탄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감탄사의 종류에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간투 감탄사가 있다. 감정 감탄사는 즉석에서 느낀 대로 표현한다. 놀람, 실망, 기쁨, 안심 등 어떤 감정과 관련된 반응이나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청자에 대한 의식이 약하므로 혼잣말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가) (이)라는 감정 감탄사를 사용한다. 의지 감탄사는 소통에 대한 의지나 태도를 표현한다. 대답, 부름, 명령 등 어떤 의지나 태도와 관련된 반응이나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청자에 대한 의식이 강하므로 혼잣말로 잘 쓰이지 않는다. (나) (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간투 감탄사는 말하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다) (이)라는 간투 감탄사가 자주 사용된다.

ㄱ. 너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ㄴ.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음’

ㄷ.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에게 ‘췌!’

(가) (나) (다)

- |     |   |   |
|-----|---|---|
| ① ㄱ | ㄴ | ㄷ |
| ② ㄱ | ㄷ | ㄴ |
| ③ ㄴ | ㄱ | ㄷ |
| ④ ㄴ | ㄷ | ㄱ |

15.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① ㉠: 헛살  
② ㉡: 윗니  
③ ㉢: 훗날  
④ ㉣: 댕잎

16.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안에 자신을 이해해 줄 [ ]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는 새삼스럽게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야속했다.

- ① 管鮑之交  
② 過猶不及  
③ 孤掌難鳴  
④ 刮目相對



17.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과학에는 사물의 근본적 원리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고 개개의 사건들을 관통하여 지배하는 원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는 법칙 혹은 이론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며, 복잡해 보이는 세상사도 그러한 법칙과 이론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통달한 상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은 과학보다는 하위의 지적 상태를 지칭하는 의미가 꽤 강하다. 기술은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과학이라고 부를 정도의 근본적인 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나타낸다. 과학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술이 과학보다 하위인 이유는 과학은 자신의 내적인 논리를 따르는 반면 기술은 실제적인 응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열등한 상태라는 것이다.

- ① 비슷한 것에 빗대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구체적 대상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④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고 있다.

1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적 윤리 이념을 굳게 고수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남녀 간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야기가 더 우선시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정 소설은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에서 시작되어 17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이런 소설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작품이 「춘향전」이다. 사대부와 기생 집안의 여성이 사랑을 하고, 그 여성이 사대부의 정실부인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당대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이러한 「춘향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성숙을 거듭해 온 우리 서사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암행어사 설화, 열녀 설화 등 민간에 널리 유포된 설화뿐만 아니라 전대의 애정 소설도 작품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춘향전」에는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와 같은 17세기 소설의 요소도 들어 있다. 작품 속에서 「구운몽」에 등장하는 팔선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사씨남정기」에서 위기에 처한 사정옥이 꿈을 꾸고 황릉묘에서 이비를 만나는 장면이 춘향의 옥중 위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춘향전」은

- ① 서사 문학사의 전통을 물려받으면서도 기존의 흐름을 바꾼 작품이다.
- ② 성리학적 윤리관을 드러낸 전형적인 서사 문학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 ③ 남녀 간의 파격적인 애정을 그려 내어 한문 소설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 낸 작품이다.
- ④ 유명한 작품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7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19. 다음 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진보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가능해지자 위험하고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농부로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를 폭발시키고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 ① 인류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 ② 농업혁명은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이지만 더 안락한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
- ③ 인류가 자발적으로 수렵 채집의 삶을 포기하고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농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여분의 식량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피지배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 자신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다시 조직의 자존감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자존감이 높으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 ①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
- ②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 ③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 ④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는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